

5·18 왜곡 지만원의 ‘나쁜 입’ 이젠 닫을까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과 함께 5월단체 등에 배상” 판결

5·18재단과 광주시 남은 재판도 승소할 가능성 높아

극우 보수인사인 지만원(75)씨 등이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선동한 폭동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5·18 역사 왜곡의 책임을 묻는 민사상 첫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5·18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왜곡세력의 책임을 인정한 첫 손해배상 결과로, 향후 5·18의 진실을 왜곡하는 세력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간 5·18 피해자들은 해당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면 이제부터 5·18을 악의적으로 왜곡·편향할 경우 물질적 피해보상에 대한 민사상 책임도 져야하는 만큼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지난 11일 5·18 기념재단 등 5개 5월 관련 단체와 전주교사제·광주시민 9명이 지씨와 인터넷 보수매체 ‘뉴스타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씨가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서 북한군으로 지목한 당사자 3명에 게는 1000만원, 당사자 5명과 단체 5곳에는 500만원, 당사자 1명에게는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뉴스타운이 유인물 등으로 허위사실을 배포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할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20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5월 관련단체 등 피해자들은 지씨가 지난 2015년 6월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5·18 당시 계엄군에 체포된 광주 시민들의 사진을 올린 뒤 “체포되는 자들은 광주 시민들이 아니고 대부분이 북한 특수군 일원인 것으로 보였다”고 쓴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같은 해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5·18 현장 사진에 나온 시민들이 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 최룡해, 박명철, 문응조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뉴스타운에 게재한 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이 민사상 책임을 묻는 첫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지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3건)과 손해배상(1건)소송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씨는 현재 전주교 정의평화위원회와 5·18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광주 시민 등에 의해 지난 2015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4회에 걸쳐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됐다.

또 지난 4일 법원에서 ‘발행 및 배포금지 처분’ 인용 결정이 난 ‘5·18영상고발 화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며, 이 건도 검찰에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윤양현 광주시장도 지난 6월 지씨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낸 상황이다. 지씨와 지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대한민국 대청소 500만 야전군’회원들이 지난 6월2일부터 서울역 앞 집회에서 ‘광주시장의 증언·5·18 당시 광주교도소는 북한 특수군이 공격했다’는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었다.

김양태 5·18재단 상임이사는 “지씨 등이 계속 5·18 왜곡을 시도하는 것을 보면 누군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판결 결과를 통해 배후세력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더이상 왜곡·편향할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법적인 대처를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더위 잊은 독서 삼매경 광주·전남 지역 공공도서관과 서점을 찾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13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영풍문고 내 심터에서 학생들이 독서 삼매경에 빠져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미성년 성추행 전 칠레 외교관 징역 3년 법정구속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칠레 외교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강영훈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51) 전 칠레 주재 참사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횡수가 네 차례나 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며 “범행으

로 인해 공무원 품위와 국가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밝혔다.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공공의료를 담당한 박 전 참사관은 지난해 9월 현지 여학생(12)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강제로 껴안고 휴대전화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1월 대사관 사무실에서 현지 여성(20)을 껴안는 등 4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병원장이 상습 성추행” 직원이 고소

광주의 한 병원장이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13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광주 모 병원장 A씨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 B(여)씨의 신체 일부를 더듬는 등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것이다.

B씨는 고소장에서 “다른 간호사와 달리 나의 경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는데, (이런 행위)가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가 심해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신입으로 들어온 B씨가 병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친밀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며 B씨의 고소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증거물을 제출한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A씨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병원직원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B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해외실습 목표해대생 안타까운 죽음

카타르 정박 중 쓰러져

유족들 사망 원인 의문 제기

월 30만~50만원 받고 실습

열악한 환경 개선 목소리

액체 화학제품운반선을 타고 해외 실습을 떠난 목표해양대생이 카타르 항구에서 정박 중 선내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선사 측은 사망 원인을 열사병으로 추정했지만 유족들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활동비 30여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대학 실습해학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3일 목표해양대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0시 40분께 카타르 메사이드 항구에 정박 중인 파나마 국적의 액체 화학제품운반선 G호(1만9998t급)에서 목표해양대 항해정보시스템학부 3학년 장모(23)씨가 쓰러진 채 동료에게 발견됐다.

장씨는 발견 당시 의식이 매우 약한 상태였으며 미얀마 출신 선원 C씨(45)도 의식을 잃고 옆에 쓰러져 있었다.

이들은 항구의 병원으로 옮겨졌지

만 숨졌다. 장씨는 부산의 한 선박·선원 관리 업체를 통해 지난달부터 6개월 일정으로 G호에 탑승해 현장실습을 하던 중이었다.

선사 측은 열사병이 의심된다고 밝혔지만 유족들은 2명이 동시에 쓰러졌고 장씨가 평소 건강했던 점 등을 토대로 사인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 관리 업체 관계자는 “현지 경찰과 병원은 사인을 급성호흡근관으로 기록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은 선원 관리 업체의 근무일지 등을 조사하고 국내로 시신이 인도되면 유족의 동의를 구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사망 사고가 알려지면서 실습생들의 처우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선원 훈련에 관한 국제협약”상 선원이 되려면 최소 1년간 배에서 실습을 해야 한다.

실습생들은 배 위에서 머물며 하루 8시간 동안 실습하지만 정식 급여를 받지 못하고 월 30만~50만원의 활동비만 받는다.

장씨 역시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매월 300달러와 200달러 안팎의 추가 근무 수당을 받았다.

목표=김준석기자 kjs0533@

택시, 승용차 추돌

함평에서 2명 사망

지난 11일 밤 9시께 함평군 학교면 한 육교 아래 도로에서 개인택시(운모씨·52)와 김모(40)씨의 소나타 승용차가 추돌해 택시 승객 이모(45)씨 등 2명이 숨졌다.

택시운전기사 윤씨와 승용차 운전자 김씨 등 5명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씨가 비보호 좌회전 하던 중 직진하던 김씨의 승용차와 추돌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함평=황은희기자 hwang@

전일빌딩 리모델링 편의 제공

돈 받은 공무원 징역 10개월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지난 11일 광주시 발주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뇌물수수)로 기소된 공무원 정모(52·시설6급)씨에게 징역 10개월,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최모(57·시설5급)씨에게는 징역 6개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전일빌딩 리모델링 실시설계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설계업체에 2000만원을 요구하고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표기자 lucky@

다른 목적 있었나? ... 대낮 도심서 옷 벗고 여성 폭행한 취객



○...만취한 50대 남성

성이 대낮에 속옷까지 벗은 채로 지나가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서명. ○13일 목표경찰에 따르면 A(56)씨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목포시 용해동 거리에서 만난 B(여·60)씨와 언쟁을 벌이다 알몸 상태에서 B씨를 넘어뜨린 뒤 얼굴 등을 10여차례 이상 폭행했다는

것.

○...한 남성이 옷을 벗고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만취상태에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A씨를 나중에 경찰서로 불러 알몸 상태로 범행한 경위와 성폭행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h2>부안 숙박시설(모텔)</h2> <p>여름성수기 펜션 영업가능</p> <p>격포해수욕장, 대명리조트, 해변가 5분 토지 506평, 건물 430평(2개동 룸43개) 직접 운영시 월 수익 1500만원 가능</p> <p>감정가 16억 → 매매가 10억 (웅 6억, 보 1억, 실투자 4억)</p> <p>직매 010-7384-7800</p>	<h2>수익성상가매매</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기동 상가 (6층) 45평 → 5,000만 리모델링 완비 → 즉시입주, 시비무료, 임대가능 매가 1억6천 → 9천(웅5천) ◆ 상무지구 상가(4층) 45평 → 케이원상가 → (보2천, 월130만, 웅7천) 매가 2억5천 → 1억9천 ◆ 상무지구 상가(6층) 19평 → 롯데마트 앞 → (보500만, 월40만, 웅2,500만) 매가 1억 → 7천5백 ◆ 경기 평택시 토지 매입할부 → 전원주택, 농지 투자, 개발 → 평당 130만원 ◆ 서울 용산구 청파동상가 → 서울역 3분 → 상가 (오피스텔2개) 보600, 월70만 / 매가1억2천 <p>010-6670-9800</p>	<h2>영광주택</h2> <p>전원주택(영광읍)</p> <p>광주에서 30분</p> <p>즉시입주 가능</p> <p>내부개끗</p> <p>토지 151평</p> <p>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p> <p>감정가 1억 1천</p> <p>매가 9천8백</p> <p>010-2699-5300</p>	<h2>경매 교육</h2>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초실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주 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초부터 ~ 실전 입찰까지 ② 실전투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전 교육등고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강의 ③ 프리특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매 부동산 같이 하실분 서구 치평동 케이원오피스텔 (상무지구 한국은행, 현대아파트 사이)
--	--	---	---